도시 미래 다시 그린다…'목포 큰그림 프로젝트' 본격 가동

AI·에너지 배후거점 육성 목표 중장기 도시전략 수립

권역별 사업 재정비·전문가 TF 구성 미래비전 구체화

목포시가 인공지능(AI)·에너지 배후거점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목포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구상으로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젝트는 산업환경 전환, AI·에너지 신산업 부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프로젝트의 사전 단계로 권역별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삼학도권, 원도심권, 하당권, 항만권, 산업단지권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 중인 사업을 종합 점검하고,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며 도시 전체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큰그림 프로젝트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환경 전환, AI·에너지 신산업 부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다.

목포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향을 정리하고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생각이다.

프로젝트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목포 큰그림 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소·단별로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국장단 책임 운영 체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각 TF별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직능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전략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통해 정리된 미래 비전과 전략을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국가 정책 반영 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는 더 나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쌓여 시민들이 앞으로의 목포가 기대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이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룡캠프가 열리고 있다. 〈해남군 제공〉

보고·듣고·체험하는 공룡도시로…해남공룡박물관 새단장

시설·콘텐츠 대대적 확충

세계유산 등재 본격 추진

해남공룡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선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으로서 지난해 3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해남군은 세계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높여 공룡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입체적 관람 환경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해남을 비롯해 여수, 보성, 화순, 고성 등 국내 화석산지 보유 시군과 연계해 역량강화 워크숍, 학술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며 공룡화석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공룡화석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박물관 내부의 공룡 골격 45종 등에 대한 전시물 세척과 보호각 3개동 화석 보존관리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각종 박람회 참여 등 각종 대외홍보를 강화해 해남공룡박물관의 가치와 학술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관람객들이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도 확충한다.

박물관의 첫인상인 안내데스크와 로비, 뮤지엄샵, 휴게공간 등이 대대적으로 리뉴얼된다. 거대 공룡실 천장 마감재 보강 공사도 함께 진행되어 관람의 몰입도를층 높이고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진입로에는 공룡포토 조형물을 설치해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공룡화석 보호각으로 향하는 650m 데크길은 장미 터널로 변신하고, 노후된 데크도 전면 교체한다. 넓은 부지를 활용한 야외 콘텐츠도 대폭 확충된다.

야외 발굴 체험장은 2026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조성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고고학자가 되어 화석을 발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된다.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리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을 포함해 연간 10회의 기획전시, 거점 박물관·과학관과의 교류전시, 축제 및 명절 특별 공연 등을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룡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과 어린이 공룡기자단 탐험대, 공룡박물관 캠프 등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오감충족 만들기 체험, 공룡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상설·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 공룡박물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라는 학술 가치에 문화·체험·힐링 콘텐츠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역사·사람·삶 가득…'인문 도시' 영암 만든다

인문학 활성화 사업 추진

영암군이 올 한 해 지역의 역사·사람·자연·삶을 재해석하는 '인문학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암군의 목표는 '영암군민 누구나 문화관광해설사'다.

영암군민이 일상에서 영암을 만나고, 기록하고, 남기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설과 민담 하나, 관광지 한 곳을 방문객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로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한다.

영암군은 지난 2024년 인문도시팀을 신설해 월별 사업으로 채워가며 '영암형 인문도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4월에는 왕인문화축제와 함께 전국 인지도의 작가들이 '영암 인문학 강연'으로 연중 정기 인문축제의 장을 연다.

5월에는 도갑사 템플스테이와 까리따스농장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 '영암 인문학교?영암의 사계'가 시작된다.

6~10월에는 '인문주간'이 이어진다. 인문주간 참여자들은 탐방, 인터뷰, 글쓰기 등으로 영암을 해석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해 공유한다. 영암군은 '영암 인문 기록집' 발간으로 인문주간을 남긴다.

9월에는 지역 행사로 자리 잡은 반딧불이축제를 배경으로 '최지몽 천체관측 대회'를 새롭게 선보인다.

같은 달 '영암 아트북페어'는 책잔치를 확장해 펼친다. 그림책·일러스트 공모전과 수상작 전시, 도서전, 독립 출판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출판 문화 플랫폼으로 군민을 맞는다.

10월 국화축제와 마한문화축제에서는 캘리그래피 주소 만들기로 콘텐츠 체험 행사를 열고, 11~12월에는 인문학교 겨울 과정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2027년을 '영암 방문의 해'로 정하고 영암군민의 인문 역량으로 성황을 이루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을 인문 주체로 세우고 영암만의 인문 콘텐츠를 브랜드화해 누구나 지역의 풍성한 인문을 전파할 수 있는 영암형 인문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청년 어업인 양식산업 정착지원 업무협약. 왼쪽부터 김길동 신안군수협장,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박철남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장, 권동혁 ㈜신안천사김 대표. 〈신안군 제공〉

신안군, 신규 어장 개발 청년 어업인 키운다

해양과학고·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약

신안군이 신규어장을 개발해 청년 어업인에게 양식장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유휴수면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청년·귀어인·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졸업(예정)자의 양식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 양식산업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철남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장, 김길동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장, 권동혁 ㈜신안천사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휴수면을 활용한 신규 해조류 양식 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양식어업인과 더불어 청년·귀어인들의 양식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력 내용은 ▲2026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계획에 따른 신규 해조류 양식 수면 760㏊(여의도의 약 2.6배) 확보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기존 어업인과 연계한 멘토링과 양식 기술 전수 ▲신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중심 실습 및 교육 강화 ▲초기 정착단계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계약수매 추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완도군, '해조류·전복' 기후위기 대응 수산전략 추진

AI 기반 양식 시스템 구축

김 양식 육상 채묘 비중 확대

완도군이 해조류와 전복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우량 종자 개발과 양식 기술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양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다시마는 지난해 전국 대비 71%를 차지하는 38만t, 미역은 56%를 차지하는 32만t, 김은 23%에 해당하는 12만여 t을 생산했다.

특히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다도해 해역의 안정적인 해황, 풍부한 영양염 등으로 해조류 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생산 기반, 축적된 양식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김 양식의 경우 육상 채묘를 확대하고, 미역과 다시마 등은 가 이식이 없는 양식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이상 해황에도 안정적으로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 우량 종자 개발 사업과 더불어 김 양식 시 산처리를 하지 않고 높은 수압으로 규조류를 제거하여 영양염을 흡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 앞바다 전복 양식장 전경.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도도 병행된다.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감태 양식을 확대해 어가 소득을 높이고, 성장 단계별 성분 분석을 통해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복 산업과 연계한 해조류 활용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미역과 다시마를 먹이로 사용하는 전복 양식 특성을 고려해, 해조류 먹이 부족에 대비한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과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태와 곰피 등 유망 양식 품종에 대한 종자 공급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인근 4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어업인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해 양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식품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무안군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펀딩을 통한 상품개발 및 판매경험 식품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무안 지역 원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해 식품 가공 제조 분야의 시장성과 투자가치를 확보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선주문 후생산 방식의 펀딩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의 초기 자본 부담을 낮추고, 제품의 시장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군은 총 11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가 산출, 고객 설정, 트렌드 특강 등 창업 교육과 제품 개발 컨설팅, 선진지 견학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펀딩 수수료 전액 지원과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여를 통한 판로 개척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안군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로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